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
보도		11.29(금), 오전 10:00 이후		배포	2019.11.29(금)
책임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이진수(02-2100-2880)		담당자	최지은 사무관 (02-2100-2886)	
	금감원 국제협력국장 온영식(02-3145-7890)			은호익 팀장 (02-3145-7895)	

## 제 목 : 한·중·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

- ☐ 손병두 부위원장은 11.29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
- 한국의 핀테크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,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### 1. 회의 개요

- ☐ 2019.11.29.일(금)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\*은 중국 은행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(CBIRC<sup>①</sup>)와 함께 도쿄에서 일본 금융청(JFSA<sup>②</sup>)이 개최한

\* 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

- 「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」에 참석하였습니다.

\* ① China Banking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

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

#### < 한·중·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개요 >

- ▶ 일시/장소 : 2019.11.29(금) 09:30~12:10 / 도쿄 JFSA
- ▶ 주요 참석자
  - (韓)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, 금감원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등
  - (中) CBIRC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, 탄 쯔 국제국 부국장 등
  - (日)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(금융국제심의관), 호리모토 요시오 전략개발국 부국장 등

- ☐ 한·중·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'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.

- 가장 최근에는 '17.11월 한국 주최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 했었고 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## 2. 주요 논의 내용

□ 동 회의에서 한·중·일 3국은 최근 주요 금융현안과 각 국의 대응 노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.

① (韓) 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산업·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

-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\* 시행,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 그간의 성과와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소개했습니다.

### <금융 용어 설명>

\* 금융규제 샌드박스 :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(2+2년) 적용유예·면제해주는 제도

- 아울러,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·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
-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.

② (中) 듀안 지닝(Duan Jining) 국제협력국장은 '18.4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\* 현황과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,

\*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('18.4)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('19.5월 7월 등)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,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

-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감독의 중요성과 지역간(regional) 금융 규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.

③ (日) 히미노 료조(Himino Ryozo) 국제담당 차관은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.

-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의제로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,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.

□ 한·중·일 3국은 앞으로도 동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,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